



[금융]  
윤석현의 칼끝  
주 타깃은  
보험업계  
06



Economy

코스피	2025.27	코스닥	668.49
	(-11.83)		(-4.35)
금리 (연간)	1.86	환율 (원/달러)	1124.10
	(0.00)		(+5.50) (8일)

# 반도체, 잔치는 끝났다

삼성, 작년 4분기 '어닝쇼크'  
매출액 59조, 영업이익 10.8조  
올해 1분기도 실적약세 전망

## SAMSUNG

삼성전자가 지난 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8일 2018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 59조원, 영업이익 10조 8000억원이다. <관련기사 8면>

이는 전년 동기과 비교해 각각 매출과 영업이익이 10.58%, 28.71% 떨어진 수치다. 지난 3분기보다는 9.87%, 38.53%나 급감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7년 1분기 이후 7분기만에 14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2년 전인 2016년 4분기(9조22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장 예상치인 13조~14조원도 크게 밑돌았다. 당초 증권가 등에서는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13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었다.

연간 기준 실적은 역대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지만, 4분기 실적 저조로 빛이 바랬다. 연간 매출액은 243조5100억원, 영업이익은 58조 89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64%, 9.77%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4분기 실적을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메모리 수요 부진 및 스마트폰 경쟁 심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 1분기에도 메모리 업황 약세 지속으로 인해 실적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메모리 업황 개선과 성수기 및 신규 CPU 확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5G와 인공지능(AI), 전장 사업 등에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19' 개막

(자율주행, 부품)다. 개막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델라베이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 미주법인 제품혁신본부장 이윤철 전무가 미래 비전과 혁신 제품들을 발표 하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19'이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 전시회의 주요 화두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모바일리티(자율주행, 부품)다. 개막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델라베이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 미주법인 제품혁신본부장 이윤철 전무가 미래 비전과 혁신 제품들을 발표 하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연합뉴스

### 현장에서

## '19년 만의 총파업' KB국민은행 영업점 가보니

# 사과문 내걸고 곳곳 '부재중' 귀족노조 몽니에 여론 '싸늘'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KB국민은행의 영업점은 사과문과 부재중을 알리는 안내판이 고객을 먼저 맞이했다. 대대적으로 예고된 파업에 고객들이 방문을 꺼리면서 우려했던 '창구대란'은 없었다. 대부분의 영업점이 한산했다.

8일 KB국민은행은 노조가 하루 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영업점 1058개 중 411곳을 거점 점포로 선발, 비상운영 체제에 돌입했다. 영업점은 모두 열었지만 일부 대출 등은 거점 점포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서울 마포구 내 대부분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었다. 창구 곳곳에 부재중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본사 파견 직원과 비노조 직원 등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했다. 지점 관계자는 "파업이 예고됐기 때문에 고객들이 알고 오늘은 영업점을 많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창신 지점과 신용동 지점의 경우 8개의 창구 중 2곳이 '부재중'으로 비어 있었다. 창신 지점 관계자는 "팀장급 직원을 전진배치했다"며 "비노조원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창신 지점은 '정상 영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일정시간마다 '파업으로 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안내 방송했다.

신용동 지점의 경우 부족한 업무를 파견 직원을 통해 해결



(왼쪽부터)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용두지점은 고객들이 없어 한산했다. 서울 마포구 KB국민은행 마포역점 입구에 총파업을 알리는 사과문이 붙어있다.



(왼쪽부터)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용두지점은 고객들이 없어 한산했다. 서울 마포구 KB국민은행 마포역점 입구에 총파업을 알리는 사과문이 붙어있다.

### 411곳 거점점포 비상운영 예고된 파업에 혼란 없어

### 고객들, 파업에 부정 평가 '대형은행, 월급 많을텐데'

했다. 대형 지점 직원을 보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것이다. 대출상담 창구 등도 문체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신용동 지점으로 파견 온 한 직원은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쓰며 주시하고 있다"며 "다행히 업무도 한산해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50분. 삼성역지점은 사람이 한창 몰릴 시간대임에도 한산했다.

지점 안에는 창구 고객 1명만이 개인적인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삼성역 지점은 총파업을 대비해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거점점포 411곳 중 하나다.

삼성역 지점 관계자는 "사

전 홍보 등으로 국민은행의 총파업을 미리 안 고객 분들이 많다"며 "업무가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런지 평소 고객 수보다 50% 가량 줄었다"고 했다.

거점점포가 아닌 KB국민은행 삼성동 지점 또한 창구 고객은 4~5명에 불과했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지점에 들른 김 모씨(40·여)는 "파업 때 문에 정신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와보니 대기 인원이 1명밖에 없어 앞 사람이 끝난 다음 바로 업무를 볼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이날 거점 점포 여부를 떠나 대부분 지점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원들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한산했다. 일선 은행은 사전 공지한 총파업 안내문과 스마트폰 앱 등을 이유로 꼽았다. 거점 점포인 청량리 지점의 관계자는 "평소였으면 대여섯명의 대기열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많이 한산하다"며 "며칠 전부터 파업 안내문을 붙여놓아서인지 고객이 많이 없다"고 전했다.

공덕역 인근에 위치한 마포역점 입구에 '1월 8일 KB국민은행 총파업이 진행 중입니다'라고 안내했다. 다른 영업점이 '파업으로 은행 업무처리 시간이 지연되거나 일부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문을 붙인 것과 달랐다. 창구 9개 중 4개에 부재중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대기 인원이 2~3명에 불과해 큰 불편은 없었다. 이 지점에서 카드 발급 업무를 본 20대의 박 모씨는 "카드 발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안내도 잘 해주셨다"고 했다.

혼란은 피했지만 고객들은 국민은행 파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년 가까이 국민은행을 이용해 온 김 모씨(57)는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은행이면 월급도 많을 텐데 성과급을 더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얼마나 더 받으려고..."라고 꼬집었다.

/배한님·석대성·홍민영 수습기자  
ericabae1683@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부수석비서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

# 돌아온 '親文', 떠나는 '호남' 文, 집권 3년차 靑개편 단행

노영민·강기정·윤도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통령비서실장직에 노영민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을, 정부수석비서관직에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소통수석비서관직에 윤도한 MBC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를 떠나게 된 임종석 비서실장은 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를, 정부수석에 강기정 전 의원을,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MBC 논설위원을 임명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이 단행한 이번 청와대 개편을 살펴보면 '친문 전면배치'로 요약된다. 윤 국민소통수석은 전문가로 분류되지만, 노 비서실장과 강기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평이 났기 때문이다.

이번 청와대 개편으로 '호남 이미지'가 짙던 청와대 지역색이 열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참모직책을 내려놓게 된 임종석 비서실장(전남 장흥)·한병도 정부수석(전북 익산)·윤영찬 국민소통수석(전북 전주)은 모두 호남 출신이지만, 그들의 후임자인 노 내정자(충북 청주)·강 정부

수석(전남 고흥)·윤소통수석(서울)은 출신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8일 임명한 인물들의 이력은 이렇다.

노 비서실장은 1957년생으로 충북 청주 출신이다. 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제17·18·19대 국회의원(민주당 소속)을 지낸 정치인이다.

강기정 수석은 1964년생으로 전남 고흥 출신이다. 그는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고, 노 비서실장과 함께 제17·18·19대 국회의원(민주당 소속)을 지냈다.

윤소통수석은 1961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그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MBC에서 사회1부 부장대우·문화과학부장·논설위원 등을 지낸 언론인이다.

임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개편 배경은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문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물로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공고한 친정체제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하려는 의지도 돋보인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4@